

롯데렌탈 (089860)

| Company Issue Brief | 자동차/로봇 | 2026. 8. 13

TPG와 새로운 시작

| Analyst 이병근 | bglee@ls-sec.co.kr

TPG 인수금융 없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수

8월 11일 TPG는 롯데렌탈 지분 61.17%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 대상은 호텔 롯데 보유 지분 38.14%, 부산롯데호텔 보유 지분 23.0%다. 인수가격은 58,527원으로 11일 종가 대비 30%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번엔 전량 구주 매각으로 EPS 희석은 제한적이다.

TPG가 인수금융 없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은 롯데렌탈의 신용 등급과 조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렌터카 사업은 차량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만큼, 신용 등급과 조달 금리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주주가 롯데그룹에서 PEF로 변경되면서 계열 신용지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수금융까지 추가될 경우 레버리지 확대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차량 구매를 위한 회사채·차입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TPG는 인수 초기부터 추가 차입을 최소화해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차량 조달 여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

롯데렌탈은 그동안 롯데그룹의 보수적인 재무 가이드스 아래 경쟁사 대비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해온 만큼, 인수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신용등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기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매각 불확실정까지 해소된 만큼, 향후 배당·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역시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Buy (유지)

목표주가 (유지)	51,000 원
현재주가	44,000 원
상승여력	15.9 %
시가총액	15,976 억원
KOSPI (8/12)	6,579.04 pt

Stock Data

90일일평균거래대금	30.7 억원
외국인 지분율	7.3%
절대수익률 (YTD)	39.7%
상대수익률(YTD)	-16.4%
배당수익률(26E)	2.7%

재무데이터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2,792	2,919	3,062	3,271
영업이익	285	313	355	383
순이익	103	127	132	170
ROE (%)	7.5	8.4	8.4	10.0
PER (x)	10.2	9.0	11.8	9.3
PBR (x)	0.7	0.7	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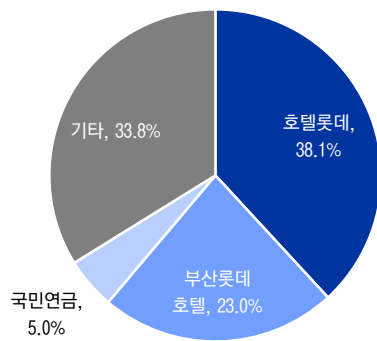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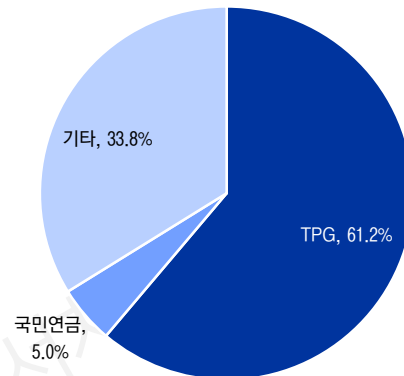


그림1 매각 전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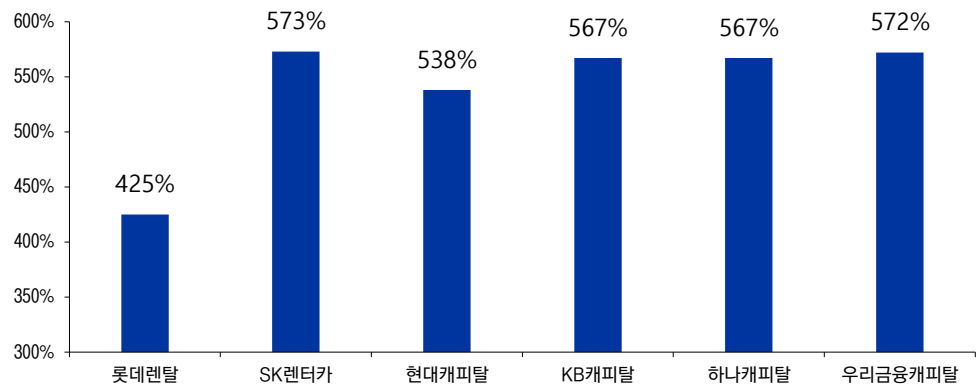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매각 후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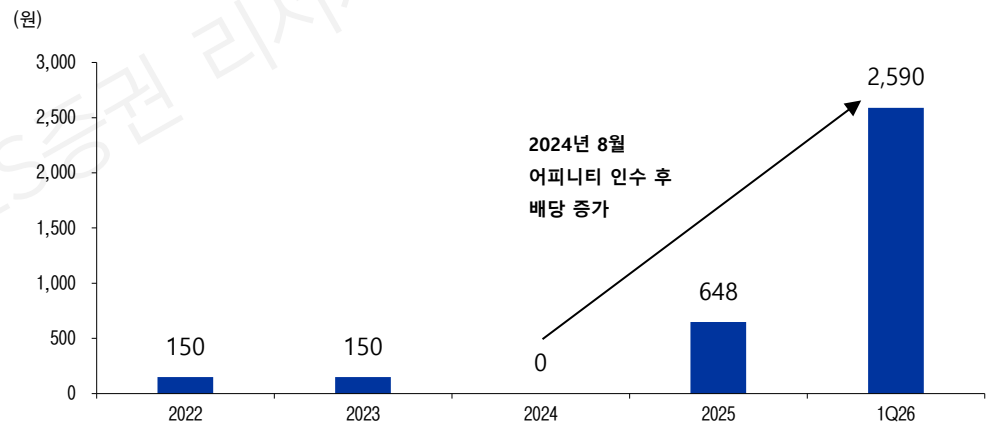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롯데렌탈 및 주요 경쟁사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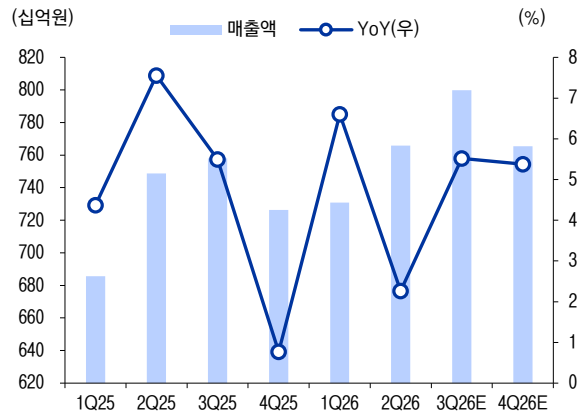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롯데렌탈 부채비율은 별도 기준

그림4 SK 렌터카 배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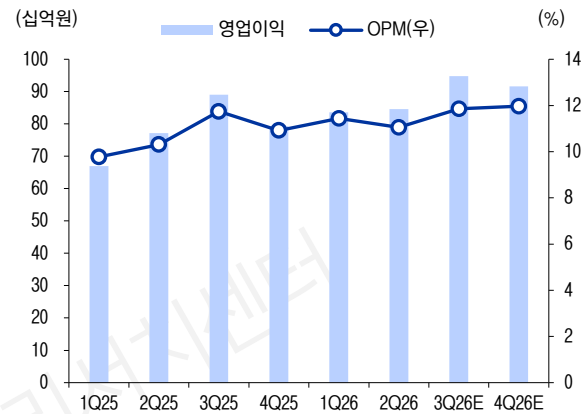
자료: SK렌터카,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롯데렌탈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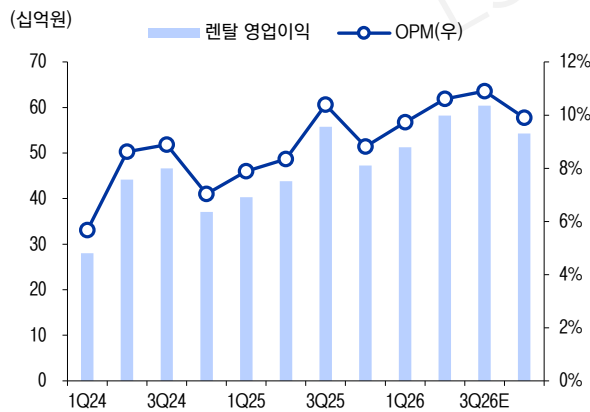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롯데렌탈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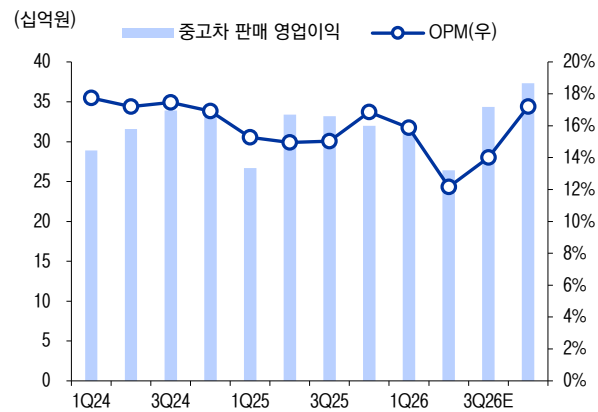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롯데렌탈 렌탈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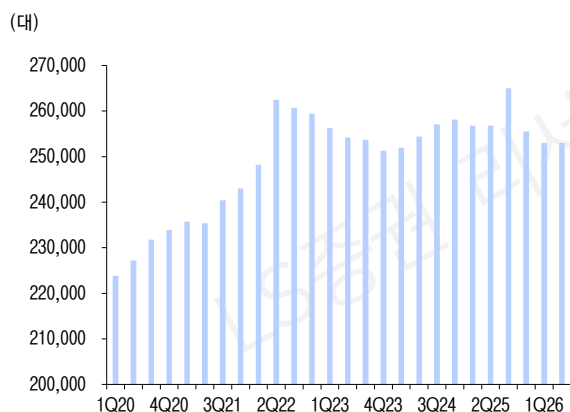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롯데렌탈 중고차 판매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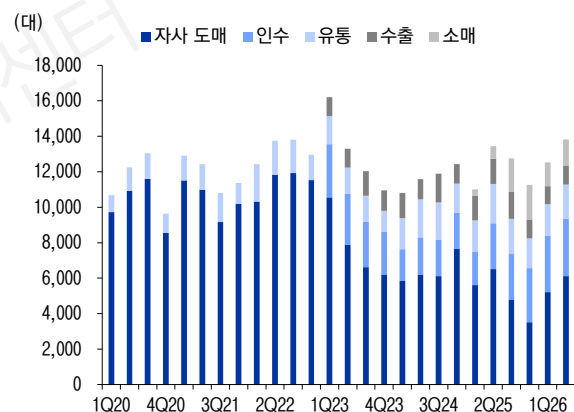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차량 인가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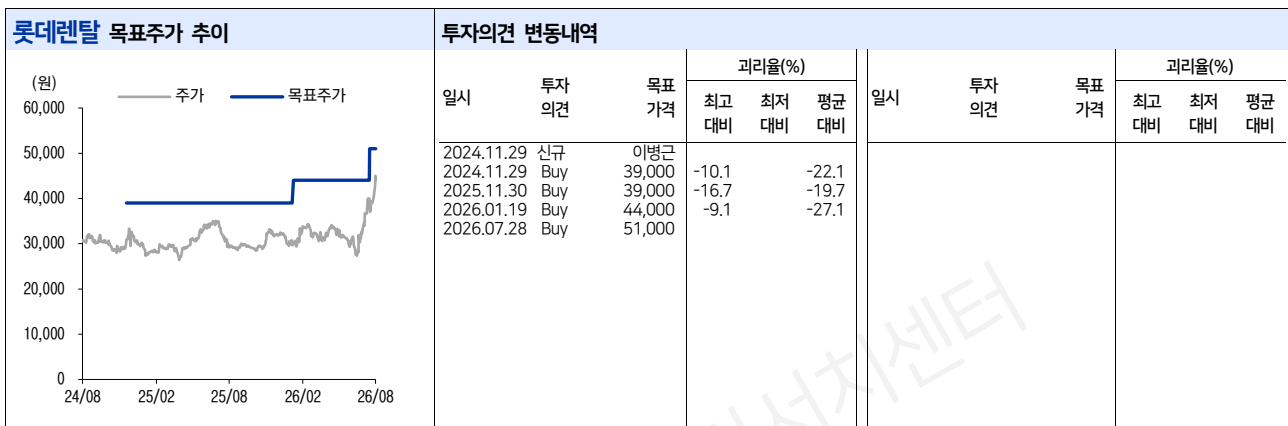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고차 매각대수 추이



자료: 롯데렌탈,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근).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